

부산 스포츠 시선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27**
2022. 06

부산체육인

다양성으로 승부한다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도경민 회장

영광의 주역

만능 체육인 불링에 반하다
부산광역시불링협회 서창옥 원로

부산스포츠 히어로

변화무쌍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향해하라!
양운고등학교 요트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체육의 미래가 연제의 미래!
연제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2025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





부산체육인

다양성으로 승부한다

-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도경민 회장



영광의 주역

만능 체육인 볼링에 반하다

-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서창옥 원로



부산스포츠 히어로

변화무쌍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향해하라!

- 양운고등학교 요트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체육의 미래가 연제의 미래!

- 연제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2025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

다양성으로 승부한다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도경민 회장

근대5종은 한 가지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 펜싱, 승마, 육상, 사격(레이저 건) 등 다섯 가지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사회적 능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유도, 테니스, 수영 등 접해보지 않은 스포츠가 없다는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도경민 회장은 근대5종을 알아가면서 큰 매력을 느꼈다.

“근대5종은 한 가지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 펜싱, 승마, 육상, 사격(레이저 건) 등 다섯 가지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사회적 능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 회장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을 전공할 정도로 다양한 스포츠 영역에 관심이 높다. 대도운수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대도하이젠 대표이자 현재 박사과정 중이라는 그는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경기하는 근대5종과 닮아 있었다. 그가 근대5종연맹의 회장으로 취임한 계기를 물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분은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대5종연맹 회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소식을 듣고, 봉사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우수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근대5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어린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는 도 회장. 그는 어린 선수들이 근대5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부산광역시 근대5종연맹회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져 올해는 2배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도 회장은 사회 환원의 방법 중 하나로, 사비를 연맹에 출연해 연맹 예산을 확장하여 선수들의 사기충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둘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어떤 결과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의 사회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도 연맹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힘닿는 데까지 지지하고 싶다는 도경민 회장. 선수들과 연맹이 함께 성장하는 청사진이 어렵지 않게 상상되는 이유는 상생하고자 하는 그의 올곧은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산 근대5종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한다.



2022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회장배 대회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임원

만능 체육인 볼링에 반하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서창옥 원로

제 나이 때까지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90세, 100세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더 열심히 운동하라고 합니다.



서창옥 원로는 1992년 사하구축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생활체육 장년부에서 축구 선수와 축구 감독으로 활약했다. 지금도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지만, 5~6년 전부터는 축구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운동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바로, 볼링이다.

“축구를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볼링장에 한번 가봤어요. 몇 번 던져보니까 운동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볼링장에 열심히 다녔어요. 나중에는 즐거울 ‘락(樂)’, 공 ‘구(球)’ 자를 따서 ‘락구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다고 하니 볼링도 축구 못지않게 오랜 세월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서창옥 원로는 일주일에 무려 4일을 볼링장에 방문할 정도로 볼링에 푹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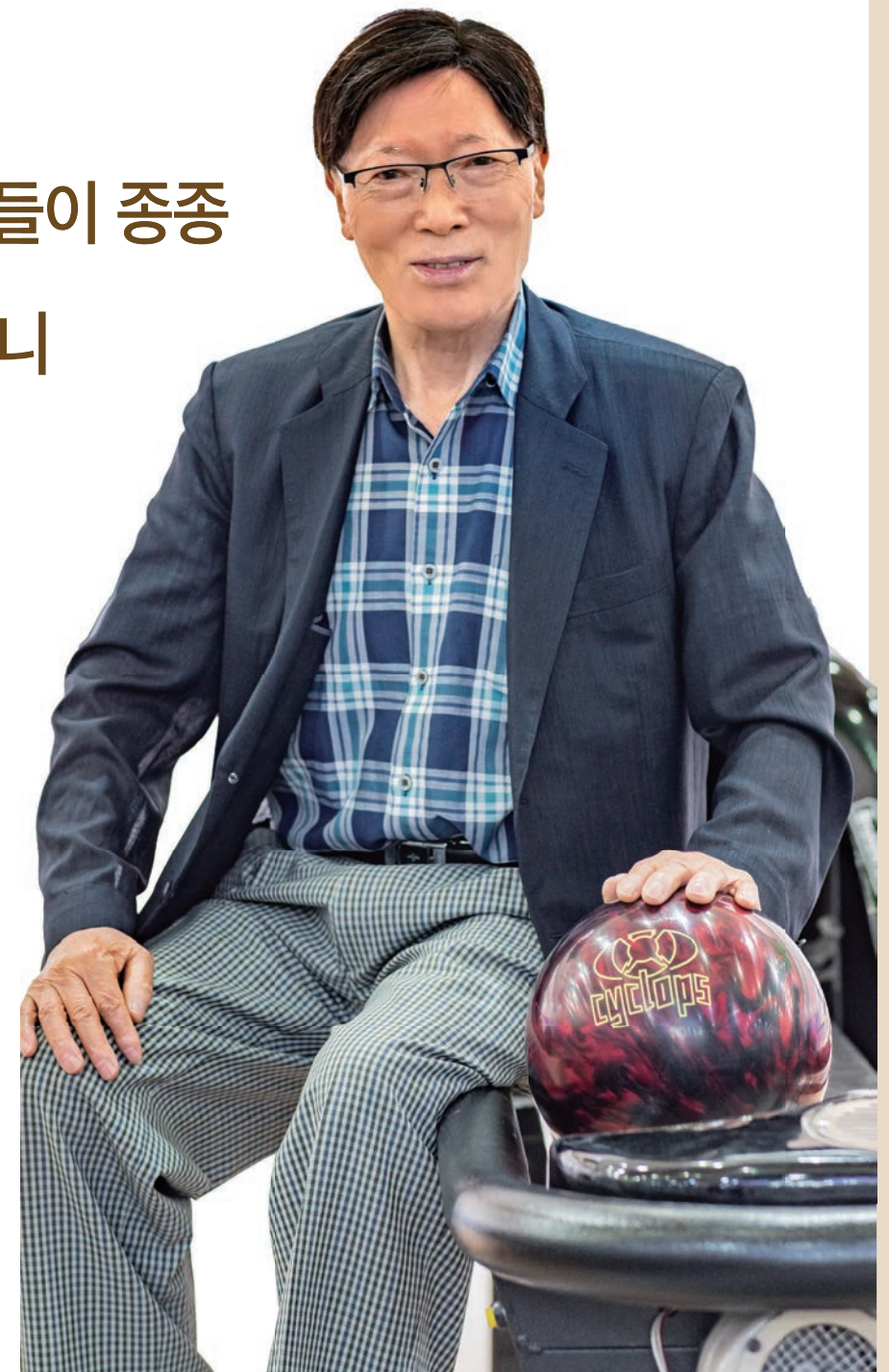
2002 FIFA 월드컵 유치 홍보 대사 활동
(전국 축구공 이어달리기 참여)

서창옥 원로는 실버볼링단 창단에도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11월 창단된 실버볼링단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 볼링을 한다. 서창옥 원로 못지않게 회원들 역시 볼링에 진심이라 볼링을 하는 날이면 매번 50명 이상은 모인다고. 그래서일까 서창옥 원로도 실버볼링단도 대회에 참가하면 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서창옥 원로는 어느덧 여든을 훌쩍 넘겼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도, 대회 참가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서창옥 원로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제 많은 이들의 목표가 되었다.

“제 나이 때까지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90세, 100세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더 열심히 운동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향한 그의 열정은 체육 단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실버볼링단을 창단했을 때처럼 생활체육인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그이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 한결같이 생활체육, 노인체육의 성장을 바라는 그의 행보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변화무쌍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향해하라!

양운고등학교 요트부는 2005년 창단 이래 17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성을 높이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대회 요트 레이저급에 출전하여 7위의 성적을 기록한 하지민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특히 '2022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4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요트부의 찬란한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요트는 무엇보다 '자연'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양운고등학교 요트부가 훈련하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천혜의 훈련장인 셈이다. 부산 바다는 전국 바다 중에 거칠기로 유명한데 이런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실력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운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지도자의 전문성을 통한 선수 맞춤형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선수들을 요트계를 이끌어 갈 재목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요트 대중화를 견인하고 대한민국 요트계를 책임질 양운고등학교 요트부. 지금처럼 바람과 파도를 가지고 놀며 바다 위를 멋지게 향해할 선수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체육의 미래가 연제의 미래!

연제구체육회는 ‘건강한 연제가 행복한 연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1999년 생활체육협의회로 출발했다. 별도로 연제구체육회가 설립되어 이원화로 운영되어 오다 2016년 3월에 연제구통합체육회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9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체육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법인화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연제구체육회는 20개의 종목(정회원 16개, 준회원 2개, 인정 2개)과 194개의 클럽으로 이루어져 7,198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생활체육 분야 중 국학기공과 배구 종목의 활동과 성적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체육 분야에선 육상팀이 전국 단위 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체육회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 광장,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유아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올해 5월부터 경로당에서 대면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또한 연제구체육회는 그동안 열지 못했던 체육대회들을 올해 마음껏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선체육회 시대에 걸맞게 각 종목단체별 체육회장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 10월엔 2년 동안 잠들었던 구민체육대회를 열고, 12월엔 체육인의 밤을 열어 끈끈한 화합을 다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체력이 국력’임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연제구체육회. 그들의 열정이 구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

2025년 WADA 총회는 아시아 중에서 최초로 부산이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총회 유치는 지난 WADA 이사회에서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국가들이 핀란드를 공개 지지했던 악조건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특히 부산시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유치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유치위원으로 위촉하여 득표 활동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25년 11월 중 5일간 열리게 될 예정인 WADA 총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패럴림픽 위원,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191개국 정부 장·차관급 등 주요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총회 기간 중 세계도핑방지 규약 개정, 국제표준 개정안 공표, 의견 수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